

1.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두 성경: 에스더, 아가(8:6에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원문에는 여호와와 불이 아니라 강한 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여전히 성경인 이유: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 선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
3. 아하수에로 왕에 대하여
 - 1) 어느 나라 왕인가? 파사-페르시아제국 (지금의 이라크,이란)
 - 2) 앗수르(앗시리아)-바벨론-()
 - 3) 몇 번째 왕? 고레스-캄부세스-다리오-()-아닥사스다
 - 4) 영토의 범위: ()에서 ()까지(1절)
4. 파사 나라와 고레스 왕
 - 1) 고레스 왕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사 45:13; 대하 36:23)
 - 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 시키는 일
 - ②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
 - ③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일
 - 2) 고레스 왕에게 주신 보상으로 주신 3 나라는?(사 45:14)
 - 3)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BC 700년경)에게 주신 것으로 약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왕의 이름까지 정확히 예언해 주신 일이다. ___렐루야!
5. 바사 왕들을 통한 이스라엘 귀환의 역사에 얹힌 수수께끼-어떻게 강대국의 왕들이 이런 호의를 베풀 생각을 하게 되었나?(에스라1:1)
6.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스더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세계사에서 큰 자취를 남긴 파사 왕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게 하실 때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우선 고려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을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Do not believe God greatly, believe the Great God.-William Carey)

1. 아하수에로 왕의 취임 잔치 규모-1) 잔치 일 수, 2) 초청 대상, 3) 수도 수산성 주민을 위한 7일 간의 연장된 잔치. 어떤 생각이 드는가?(부러운가? 웃음/비웃음이 나오는가?) 이제 까지 초대받은 부럽고 가장 화려한 파티가 있었으면 이야기 해 봅시다.
2. 아하수에로 왕의 취임 잔치는 실로 엄청난 규모였다. 그러면서도 매우 품위 있고 고상하게 진행 되었다.(8)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한 마디로 (저항할 수 없는) 그의 권력을 보여 준다.
3. 이렇게 고상하게 진행 되던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은 자기 아내에게 어떤 주문을 했는가? 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왕의 요구에 왕후는 어떻게 반응했으며, 이에 대해 왕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가?(12) 그의 행동이 8절의 잔치 규칙과 연관해 볼 때 어떻게 달라졌는가? 왜 그랬을까? 7일간 계속된 잔치 탓에 술이 취했을 것. 제 정신이 아니었을 것
5. 왕후의 행동에 대해 신하들은 왕에게 어떻게 조언했는가?
6. 그 신하들이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왕후를 폐하는 것을 고칠 수 없도록 건의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가 타당하고 또 국가 통치에 도움이 될 건의라고 생각하는가?
7. 아하수에로 왕, 왕후 와스디, 그리고 신하들의 조언 등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과격하고, 다소 과장되고,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이 평범해 보이면서도, 다소 과도한 행동 조치들을 통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방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베풀거나 그 잔치에 초대 받는 것을 생의 목표로 살아간다. 저들을 부러워하면 우리는 제국의 통치 아래 놓인 자들이다. 저들을 보고 웃을 수 있어야 하고 비웃을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준비

오늘 이야기는 사소한 부부싸움 이야기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당대 최강대국 파사제국의 왕과 왕후라는 사실과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메시아 탄생과 그로 인한 새 이스라엘 창조라는 미래의 구원계획과 관련해 볼 때 보통 사건이 아니다. 앞으로의 하만을 통한 이스라엘 괴멸을 계획하고 있는 사탄의 엄청난 도전을 대처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준비는 바로 (왕후 와스디의 폐위)였다.

1. 왕의 노가 풀린 후 신하들이 무엇이라고 조언했는가? 후임 왕후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2. 그렇게 조언한 이유가 무엇일까?
3. 신하들의 조언을 왕이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
4.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가정 배경이 어떠한가?(5-7/왕하24:14-15 참고)
5. 모르드개와 에스더에 대한 두 가지 평가
 - 1) 긍정적인 평가: 바벨론, 바사제국을 거치면서 60년 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 2) 부정적인 평가
 - *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삶 (5-7/참조.대하36:23, 에스라1:3)
 - *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삶 (10-11)
 - * 환경에 잘 적응한(동화된) 사람들
6.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조심시킨 한 가지가 무엇인가?(10)
7. 에스더가 왕후 선발 대회에 응모한 동기가 무엇일까? 민족을 위한 희생적 결단인가? 개인의 영광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인가? 그 동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8. 에스더와 다니엘(그의 세 친구)의 신앙을 비교해 보자(단 1:8-16)
9. 왕후의 조건이 무엇이었으며, 에스더가 왕후로 뽑힌 것은 무엇 때문인가?
10.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 * 와스디의 폐위 ⇒ 1~2절() ⇒ 9절()
 - ⇒ 15절() ⇒ 17절()
11. 헤개의 특별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9) 에스더는 결국 누구에 의해 왕후가 되었는가? 무엇을 위해?

12. 에스더는 아하수어로 왕의 아내와 예수님의 아내 중 누구의 아내 되기를 더 원하였는가?

13. 에스더의 두 남편, 아하수어로와 예수님은 그의 아내를 위해 각각 무엇을 했는가?(17-18/이사야53장)

14. 하나님의 두 번째 준비: 모르드개가 공을 세움

갑자기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21) 이것을 모르드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11,19,2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 지혜로우신 하나님

왕은 마치 살아있는 인형 수집을 하듯 왕후 후보들을 불러 모았고,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를 고르고자 했습니다. 수 백, 수 천 명은 족히 넘었을 왕후 후보자들은 마치 복권 당첨을 노리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이들 모두의 생각은 성경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의 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2.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잠21:1 왕의 마음이 ()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The king's heart is in the hand of the Lord: he directs it like a watercourse wherever he pleases."

3.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언약과 말씀을 외면하고 산 불쌍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섬세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4. 정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순서대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것 하나 순서가 바뀌어도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며 하나님의 바둑판에는 순서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출세를 바라던 모르드개는 큰 공을 세우고서도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일에 쓰시기 위함이었지만 모르드개는 몰랐을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답답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큰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고 그저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지난과 복습: 하나님의 사전 준비 두 가지

①

②

1. 세상 일이 다 그렇듯, 공은 모르드개가 세웠는데 엉뚱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 누구인가?(1)

2. 하만은 어떤 사람인가?(1)

3.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의 관계:

1) 아말렉의 첫 등장과 그 의미(출17:8)

2)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출17:14; 신25:17-19; 삼상15:1-33; 대상4:43)

4. 왕의 명령이 무엇이며, 이에 대해 모르드개는 어떻게 행동하였는가?(2)

5.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단3:18). 이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롬13:1)

6. 모르드개의 행동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행동은 어떻게 다른가?(단3:18) 이와 관련해서 마 23:24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7.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3-4/2:10참조)

8. 세상의 권력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롬13:1)

9. 모르드개의 이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가?(6,13)

10.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모르드개는 각각 어떤 실수를 하였는가?

1) 사울(삼상15:1-3, 9)

2) 모르드개(3-4, 6, 13)

11. 하만의 구체적인 이스라엘 멸절 계획이 어떠한가?(7-9)

12. 아하수어로 왕은 원래 매우 차분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1:8, 13) 그런 그가 하만의 계획에는 어떻게 반응했는가?(10-11)

세상에 이럴 수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고, 공은 모르드개가 세우고 상은 하만이 받고, 아하수어로 왕은 매우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하만의 계획 앞에는 그 답지 않게 신중하지 못하다. 자기를 살려 준 모르드개를 보상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더니 이번에는 엉뚱한 사람에게 상을 줄 뿐 아니라 그의 어처구니없는 계획에 한 마디 질문, 한 번의 고민도 없이 덤썩 따인을 해 준다. 세상에 이럴 수가? 사탄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지만, 그러나 덤벙거리는 인간들의 실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빛난다.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세상이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뭐가 걱정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서는 아말렉 족속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고(안하고) 남겨 두었다.(특히 사울 왕이) 하만은 진작 없어야 할 아말렉 족속의 남은 후예다. 그리고 그가 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 이제 사탄은 이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 한다.(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사울과 모르드개는 다 같이 () 지파 출신이다. (기스의 아들 사울, 기스의 증손자 모르드개-같은 가족일 가능성이 많다.) 수십 년 전, 사울의 자그마한 실수와, 수십 년 후 그의 후손 모르드개의 또 다른 실수로 인해 이스라엘은 한 순간에 완전히 멸절될 뻔하였다. 자그마한 불순종 하나가 이렇게까지 큰 문제의 불씨가 될 줄이야. 대단한 사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런 사탄의 계획을 이렇게 섬세하게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시니 말이다. 잠 16:9-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을 인도하는 자는 ()이니라.

1. 이스라엘 멸절을 위한 사탄의 계획이 무엇인가?(3:6) (그때를 아십니까?-일제히 쥐를 잡자)
 2. 하만은 어떻게 이스라엘 박멸을 계획하는가?(3:7) 왜 부르(제비)를 뽑아 날을 정했을까?
 3.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을 박멸할 날을 정하기 위해 부르(제비)를 뽑은 것은 일종의 종교 의식이었다. 즉, 자기의 신에게 날을 받은 것이다. 제비뽑기를 한 날과 뽑아서 얻은 날짜가 각각 언제인가?(7,13)
 4. 정월(1월) 즉 니산월에 제비뽑기를 해서 얻은 날짜는 그해 12월, 곧 아달월 13일이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당장이라도 시행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일은 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루어지게 됐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잠16:9/롬11:33)
 5. 유대인 진멸 조서가 전국으로 전달되었다. 이에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1-3)
 6.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까지 간 것은 자신의 처지를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에게 민족의 위기를 알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모르드개는 지금 하나님보다는 아하수어로 왕에게 호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과연 에스더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기만 하면 사태가 해결 되는가? 지금 에스더의 처지는 어떠하였는가?(8-11)
- ◎ 역대하20:12 “우리 하나님이며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
7. 모르드개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얻은 왕후의 자리인데..... 이에 대해 모르드개의 2차 요청이 무엇이며, 에스더는 이 요청에 어떻게 하는가?(13-16)

여호와 시레

왕이 에스더를 30일간 찾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허락 받지 않은 채로 왕에게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와스디의 경우를 기억

하는가?) 만약 왕이 금홀(지팡이)을 내 밀지 않는다면, 에스더의 인생은 끝나고 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에스더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호와 이레(창22:14)

하나님은 에스더의 도움이 필요하셨는가?

만약에 에스더가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껴서 침묵하였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지금 하나님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에스더의 결심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적으로 에스더의 결심에 달려있는가? 천만에 말씀.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고레스 왕의 마음도 마음대로 움직이신 분이신데, 그까짓 거 사람 마음 바꾸시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잠언21:1 “왕의 마음이 ()의 손에 있음이 마치 ()의 ()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 하시느니라”

8.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14)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보자.(창45:5/ 잠16:4/ 롬8:28)

9.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참으로 위대한 결단을 하였다. 고생 끝에 얻은 왕후의 지위도, 자신의 안전과 생명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모두가 사는 길이 열렸다. 요12:24/눅17:33을 찾아보자.

10. Fasting and Acting-이 결단을 위해 그녀는 금식했고, 금식한 후 그녀는 행동했다. 에스더의 행동은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11. 모르드개는 아하수어로 왕에게 가기 위해서 에스더라는 중보자가 필요했다.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중보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더 나은 중보자는 누구인가?

순종, 그 황공한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희생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사역에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신다. 마지막에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 없는데, 단지 순종했을 뿐인데.

12.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약속, 어떤 교훈이 있는가?

1. 지금 에스더와 왕은 각각 어떤 형편인가?(3:11, 16)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에게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2)

2. 30일 동안 찾지 않았던 에스더, 그것도 3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었다. 잠언21:1 “왕의 마음이 ()의 손에 있음이 마치 ()의 ()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 하시느니라”

3.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행동은 마치 러시안 룰렛 게임과도 같았다. 방아쇠를 한 발 한 발 당길 때마다 피를 말리는 죽음의 공포가 따른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총에는 총알이 한 발도 들어 있지 않았다. 죽을 것 같은 위험, 위협이 있는데 사실은 아무 일 없었다.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평안을 확인해 보자.

1) 잠28:1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 같이 담대하니라

2) 시3:5-6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3) 찬470장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It is well with my soul)

4. 왕은 자신의 부름 없이 나타난 에스더에게 금홀(지팡이)을 내 밀 뿐 아니라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는 왕의 호의에 대해 에스더는 어떻게 대답하는가?(4)

5.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 왕이 동일한 제안을 했을 때 에스더는 또 어떻게 대답하는가?(8)

6. 위의 두 번의 뜸들임을 통해 왕과 하만에게는 각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기도(금식)를 통해 가진 확신

에스더는 마치 임질하는 고기를 곧 바로 낚아채지 않고 확실히 물때까지 기다리듯이, 느긋하게 처신하고 있다. 닳아 올랐을 때 다검질을 해야지 에스더는 지금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가? 왕의 마음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사형집행 날짜까지 확정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런 모험을 하다니, 에스더가 어떻게 이런 용기(지혜)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3일 금식을 하던 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확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모르드개는 민족주의적 고집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금식기도를 한 에스더는 그와는 다른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7. 왕궁에서 돌아온 하만이 친구들과 아내에게 한 자랑의 내용이 무엇인가?(11-12)

8. 왕후 에스더의 잔치를 다녀온 하만은 극도로 기뻐하였지만, 모르드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하만에게 친구들과 아내는 어떻게 상담(조언)을 해주었는가?

9. 만약 당신이 하만과 같은 사람을 상담(조언)해 준다면 성경적으로 무엇이라 말해줄 것인가?

10.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대로 하만은 모르드개를 달 장대를 준비했지만, 실은 자기가 처형당할 형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자.

1) 시37:20 악인은 멸망하고 영화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되어 없어지리라

2) 시75:7 오직 ()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3) 롬12:19 ()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 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신21:23) 하만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모르드개 대신 자신이 나무에 달렸다. 먼 훗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놓임을 받았다.

11. 에스더의 살신성인의 행동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시는가?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우리를 인형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인형처럼, 로봇처럼 사용하시지는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롬8:28)

12. 다음 구절들을 통해 아하수에로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자.

1) 빌4:6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2) 히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 나아갈 것이니라

3) 롬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이나 ()이나 ()이나 ()이나 ()이나 ()이나 ()이나 ()이나 ()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 3장, 4장을 거치면서 유다의 운명은 점점 더 나빠졌고 어두워졌다. 그리고 5장, 특히 14절은 그 절정에 달한 장면이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시는가?(1, 참조 5장)
2. 성경에는 왕들이 잠을 못자는 이야기가 종종 있다.(단2:1, 6:18) 그런데 이번 아하수에로의 경우가 이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3. 우연히 읽게 된 궁중 일기 내용이 무엇인가?(2) 이 일이 언제 일어났던가?(2:19-23)

수산철의 잠 못 이루는 밤-우연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

14절 한 절은 유다인 멸절을 위한 모든 계획이 다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절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커피를 많이 마신 것도 아닐 텐데 왜 잠이 오지 않는지,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역대 일기책을 읽게 했는지, 많고 많은 일기 중에 왜 하필 두 내시의 왕 암살 계획과 관련된 페이지를 읽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모르드개를 처형하기 위해 높은 장대를 세운 날, 바로 그 밤에 일어났다. 확실히 계산할 수 있다면 몇 분의 몇이나 될까?

5. 일기 내용을 들은 왕의 마음에 어떤 선한 생각이 들었는가?(3) 그리고 왕은 자기 생명의 은인에게 상을 베풀 계획을 누구와 상의하는가?(4-5)
6. 하만이 그날 밤 왕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며(4) 왕의 질문에 하만이 제시한 방안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했겠는가?(6-9)
7. 하만의 조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만약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니었다면 그의 조언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쫓쫓. 인간이란...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가?(눅6:31)

하나님의 준비-악한 자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왕후 에스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 두 신하의 왕 모살 계획과 모르드개의 고백(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즉각적인 상을 받지 않은 것까지), 왕의 잠 못 이루는 밤과 일기 읽기.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하만의 조언(고마워요 하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주도면역했던 왕 아하수르에의 잔치 마지막 날의 주흥과 그로 인한 실수한 왕스디의 폐위, 그리고 두 신하의 왕 암살 계획 등은 유대인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게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사건이 하맛을 통한 사탄의 이스라엘 멸절 계획(더 멀리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무산시켜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무산시키려는 계획)을 중단시키시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다. 하맛? 뛰어야 벼룩이다.

잠16:4 여호와께서 ()을 그 씩움에 ()하게 지으셨나니 ()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하여 ()을 이루느니라

8. 하만이 모르드개를 왕의 마차에 태워 온 성을 돌았을 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마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_____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_____.

9. 크게 창피를 당한 하만이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와 친구들 무엇이랴 예언을 하는가?(13)

10. 기고만장했던 하만, 한 나절 동안 왕이 되는 그의 한 낮의 꿈(day dream)이 악몽(night mare)으로 끝나는 데는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의 꿈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시2:1-4)

11. 하만의 몰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만은 지금 자기가 공격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임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 창12:3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2. 그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이 채 끝나지 않아서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라는 내시들의 말이 들렸다. 두 번째 잔치 자리로 가던 하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5:9,12과 비교해 보라.

13. 5장 마지막과 6장의 마지막 장면을 서로 비교해 보라. 얼마나 대조적인가?

14.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을 운명이었던 모르드개에게 대신 왕복을 입히셨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에게는 왕복 대신 죄수복을 입혀서 나무에 매다셨다. 모르드개가, 그리고 내가 달렸어야 할 그 나무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롬8:32)

15.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교훈(약속)이 있는가?

1. 에스더의 또 한 번의 위대한 결단

- 1) 자신의 신분을 밝힘-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각오함/ 떠났던 공동체로 돌아옴
- 2) 하만의 이름을 밝힘-그래도 아직 파사제국의 제 2인자인데.
- 3) 유대인 학살 조서-왕도 고칠 수 없는 조서

에스더의 또 한 번의 위대한 결단

에스더는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숨기고 이방인처럼 살아왔다. 유월절도, 초막절도, 금식일도 깡그리 잊고 살아왔다. 스스로 깊은 벽장 속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벽장에서 나옴 때가 되었다.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밝히고 나섰다. 그것도 유대인의 집단 착상이 확정 된 후에. 그녀는 실로 파사제국의 왕후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쪽을 택한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후 또 한 번의 위대한 결단의 순간이다.

2. 일전에 하만의 아내가 하만의 몰락에 대해 예언한 적이 있었지만(6:13)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처형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과정을 통해 하만의 처형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는가?

1) 에스더의 하만 고발 → 2) (8) → 3) 의 보고(9)

3. 하만의 죽음은 기분 좋은 복수극이 아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만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출17:14)

4. 하만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하만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릴 사탄의 계획에 쓰임 받고 있다. 유대인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하만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창12:3을 보라.

5. 천하 제 2인자였던 하만의 죽음, 그리고 왕도 마음대로 변개할 수 없는 파사제국의 조서를 뒤엎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 이런 엄청난 일은 에스더의 지혜나 용기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시127:1을 찾아보자.

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할 만큼 용기가 있었고, 왕이 소원을 물을 때 성급하게 당하지 않고 두 번씩 잔치를 베풀으로써, 왕으로부터 두 번 세 번 ‘나라의 적반이랴도 주겠다’는 확답을 공개적으로 받아낼 만큼 주도면밀했고, 또 어려운 일임을 앞에도 주저 없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하랄의 고백할 만큼 용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멸망당할 유대인들을 구할 수는 없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자기 백성들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간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

6.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시75:9

롬12:19

7. 하나님은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친구도 원수가 되게도 하신다. 에서의 마음을 바꾸 시기도 하고, 아하수에로와 하만 사이에 적개심을 두시기도 한다. 창3:15을 찾아보자.

mission impossible

자신이 곧 처형당할 유대인이며, 하만은 여전히 파사제국의 2인자로 존재하고, 유대인 학살 조서는 왕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할 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학살을 중단하는 것은 mission difficult가 아니라 mission impossible이었다. 나폴레옹은 자기 사전에 이 글자가 없다고 했지만(틀림없이 불량품)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말 불가능이 없다.(눅1:37)

세계의 왕이라 불릴만한 아하수에로는 막강 권력 그 자체였다. 에스더는 이 왕의 비위를 맞추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이 계시니 우리는 그분께 아부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분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약속, 어떤 권면이 있는가?

1) 롬8:32 자기 ()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2) 엡3: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 것이나 ()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3) 히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를 얻기 위하여 () 앞에 () 나아갈 것이니라

1.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만든 법은 여전히 살아 있다. 파사제국의 법은 매우 엄격하여 왕이 내린 유대인 학살령은 취소할 수가 없었다. 이에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것을 권했다. 두 번째 조서에서 유대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허락한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11)
2. 이 일을 시행하도록 한 날짜가 언제이며(12), 이날은 어떤 날이었나?(3:13)
3. 유대인을 위하는 아하수제로 왕의 열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가 이 일에 어느 정도로 열심인지 말해보라.(9-10)
4. 아하수제로 왕의 두 번째 조서는 단지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정도가 아닌 유대인을 해치는 자는 자기 국민이라도 죽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나님은 아하수제로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창 12:3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 모르드개의 조치가 비도덕적이고 너무 지나진 것은 아닌가?(참조/출17:14-16, 삼상 15:2-3)

언약을 지키시는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아말렉 족속과 대대에 싸우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어린 아이와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다. 지금 모르드개는 개인의 원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중이다. 사울 왕에 의해 남겨진 미환의 인무늬, 왕족의 신분으로 모르드개가 원수하고 있다. 다 꺼져가던 이스라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아말렉의 후손은 그 몇 대 후손이라도 찾아내어 응징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출34:6-7을 읽어보자.

6. 모르드개의 변화를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 보라.(4:1-3/8:2, 15-17)

- 1) 복장
- 2) 감정
- 3) 신분

7.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한 때가 있었는가?

회복

모르드개 한 사람의 실수 인해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아닌, 혼자만 잘 살아보겠다고 남은 불신앙의 두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 일하셨다. 유대인이 되기보다는 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시민으로, 대 제국의 번영된 문화를 즐기고 싶어 동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에스더와 모르드개. 철저하게 유대인의 신분을 숨기고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에 자리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유대인 된 신분을 공개하게 하셨다. 목숨을 건 신분공개였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본인들 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의 지원을 높여주셨다.

8. 어떤 약속이 있는가?

- 1) 눅 12:8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_____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_____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_____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_____함을 받으리라
- 2) 삼상2:30 ...나를 _____ 여기는 자를 내가 _____ 여기고 나를 _____하는 자를 내가 _____ 여기리라
- 3) 요 10:28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_____ 자가 없느니라
- 4) 사 61: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_____ 주어 그 _____를 대신하며 _____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_____의 옷으로 그 _____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의의 심으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법안은 왕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아하수제로 왕은 이전의 법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유다인들의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법안을 알아서 만들라고 했다. 그래서 만들어 진 법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8:11-12)
2. 유다인들과 모르드개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라.(2-4)
3. 이 법령이 시행된 첫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5-10)
4. 수도 수산성에서의 살해보고(500명과 하만의 10아들)를 들은 아하수제로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이라고 하였는가?(11-12)
5. 이에 대해 에스더는 무엇을 요청하였는가? (13-14) 어떤 생각이 드는가?
6. 이틀 동안 유다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모두 얼마인가?(16)
7. 모르드개가 작성한 법안에는 유다인들의 원수들을 죽일 뿐 아니라 그들의 재물도 탈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전쟁

12월 13, 14일 양일간 에스더, 모르드개, 그리고 유다인들이 한 일들은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자기 개인의 원수를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하고 있는 중이다. 즉, 거룩한 전쟁을 수행 중이다.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이들이 개인의 원수 감정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들은 지금 삼상 15장의 사울의 실수를 고스란히 거꾸로 되돌려 놓고 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가 이와 같다.

8. 이틀간의 원수 살해 후 유다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17-18)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잔치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렸고, 12월 13일 하루에 몰살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히려 하만의 10 아들을 시체를 매달고, 원수들을 이틀 만에 75,000명이나 죽였다. 그야말로 엄청난 대 역전이다. 이 일은 원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14-15일 양일간 잔치를 열었다. 자칫 옹졸한 민족주의적 소아적 발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다. 4장의 그들의 음식과 비교해 보면 실로 격세지감, 만감교차 이런 단어가 떠오르고 남음이 있다.

9. 홍해를 건넌 후(출 15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수 8:30-35),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삿 5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8.15 해방, 625 전쟁 때 유엔군 파송 결정과 인천상륙 작전 성공 등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대 반전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 반전의 역사들이 있었는가?

1. 부림절에 대해(21-26)

- 1) 날짜
- 2) 기원
- 3) 뜻

2. 부림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절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대대로 지켜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22)

3. 그 성격상 부림절과 가장 비슷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다면 어느 절기일까?

4. 부림절을 지키는 방법, 즉 부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22) 이렇게 함에 있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부림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것이 부림절에 행하는 일들이다. 명작 없는 설날, 추석, 추수감사절, 성탄절 분위기이다. 부림절에는 잔치도 필요하고, 선물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날은 모든 유다인들을 처형하기 위해 하만이 부르(제비)를 뽑아서 정한 바로 그 날이다. 부림절에 잔치도 선물도 가난한 사람도 다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부림절(12월 14-15)과 가장 가까운 오늘날의 성탄절에 잔치, 선물,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에게마저 예수님이 밀려, 점점 잊혀져가는 것 같아서 명 마음이 좋지 않다.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과 베푸신 사랑, 우리가 축제 때 선물 외에 잊지 말고 교환해야 할 것들이다. 부림절에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없는 가난한 자 구제는 부림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를, 예수님 때문에 돌아보아야 할 대상이다.

부림절,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원수(하만)에게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유다인들에게는 아직 한 명의 원수가 더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파사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자유는 모르드개가 아니라 그의 통치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더 기다려야 할 완전한 회복, 완전한 승리가 남아있다.

평화를 위해 지불한 댓가-모르드개, 에스더 vs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지불한 대가는 3일 금식이 교작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셨다. 예수님은 하만과 같이 나무에 달려 온 인류에게 조롱 당하셨다. 모르드개가 준 평화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5. 당신에게도 부림절이 있는가?

6. 다음과 같은 주제로 에스더서를 정리해보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사탄의 계획을 파괴하실 하나님의 계획,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대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1. 3장, 4장을 거치면서 유다의 운명은 점점 더 나빠졌다. 그리고 5:14절은 그 절정에 달한 장면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시는가?(1)

수산철의 잠 못 이루는 밤-우연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5:14절 한 절은 유대인 멸절을 위한 모든 계획이 다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절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커피를 많이 마신 것도 아님 텐데 왜 잠이 오지 않는지,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역대 일기책을 읽게 되었는지, 많고 많은 일기 중에 왜 하필 두 내시의 왕 앞살 계획과 관련된 페이지를 읽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모르드개를 처형하기 위해 높은 장대를 세운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났다.

2. 일기 내용을 들은 왕의 마음에 어떤 선한 생각이 들었는가?(3) 그리고 왕은 자기 생명의 은인에게 상을 베풀 계획을 누구와 상의하는가?(4-5)

3. 하만이 그날 밤 왕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며(4) 왕의 질문에 하만이 제시한 방안이 무엇이었는가?(6-9)

하나님의 준비-악한 자도 그 씨움에 적당하게

왕후 에스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 두 신하의 왕 모살 계획과 모르드개의 고발(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즉각적인 상을 받지 않은 것까지), 왕의 잠 못 이루는 밤과 일기 읽기.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하만의 조언(고마워요 하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주도면역했던 왕 아하수르에의 잔치 마지막 날의 주흥과 그로 인한 실수한 에스더의 폐위, 그리고 두 신하의 왕 앞살 계획 등은 유대인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게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사건이 하만을 통한 사탄의 이스라엘 멸절 계획(더 멀리서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무산시켜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무산시키려는 계획)을 중단시키시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다. 하만? 뭐어야 벼룩이다.

잠16:4 여호와께서 ()을 그 씌움에 ()하게 지으셨나니 ()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하여 ()을 이루느니라

4. 기고만장했던 하만, 한 나절 동안 왕이 되는 그의 한 낮의 꿈(day dream)이 악몽(night mare)으로 끝나는 데는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의 꿈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시2:1-4)

5. 하만의 몰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만은 지금 자기가 공격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임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 창12:3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6. 그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이 채 끝나지 않아서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라는 내시들의 말이 들렸다. 두 번째 잔치 자리로 가던 하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5:9,12과 비교해 보라.

7.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을 운명이었던 모르드개에게는 왕복을 입히셨다. 그러나 정작 아들 예수님에게는 왕복 대신 죄수복을 입혀서 나무에 매다셨다. 어떤 약속이 있는가?(롬8:32) 자기 ()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1.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만든 법은 여전히 살아 있다. 파사제국의 법은 매우 엄격하여 왕이 내린 유다인 학살령은 취소할 수가 없었다. 이에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것을 권했다. 두 번째 조서에서 유다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허락한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11)

2. 이 일을 시행하도록 한 날짜가 언제이며(12), 이날은 어떤 날이었나?(3:13)

3. 아하수어로 왕의 두 번째 조서는 단지 유다인들을 보호하는 정도가 아닌 유다인을 해치는 자는 자기 국민이라도 죽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나님은 아하수어로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창 12:3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 모르드개의 변화를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 보라.(4:1-3/8:2, 15-17)

- 1) 복장
- 2) 감정
- 3) 신분

언약을 지키시는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아말렉 족속과 대대에 싸우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어린 아이와 갓생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다. 지금 모르드개는 개인의 원수인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중이다. 사울 왕에 의해 남겨진 미환의 임무를, 왕족의 신분으로 모르드개가 완수하고 있다. 다 꺼져가던 이스라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아말렉의 후손은 그 몇 대 후손이라도 찾아내어 응징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회복

모르드개 한 사람의 실수 인해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아닌, 혼자만 잘 살아보겠다고 남은 불신앙의 두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 일하셨다. 유대인이 되기보다는 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시민으로, 대 제국의 번영된 문화를 즐기고 싶어 동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에스더와 모르드개. 철저하게 유대인의 신분을 숨기고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에 자리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유대인 된 신분을 공개하게 하셨다. 목숨을 건 신분공개였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본인들 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의 지위를 높여주셨다.

5. 어떤 약속이 있는가?

- 1) 눅 12:8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_____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_____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_____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_____함을 받으리라
- 2) 삼상2:30 ...나를 _____ 여기는 자를 내가 _____ 여기고 나를 _____하는 자를 내가 _____ 여기리라
- 3) 요 10:28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_____자가 없느니라
- 4) 사 61: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_____주어 그 _____를 대신하며 _____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_____의 옷으로 그 _____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유대인 자기 보호 법령이 시행된 첫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5-10)
2.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수세로 왕은 에스더에게 소청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에스더는 무엇을 요청하였는가? (13-14) 어떤 생각이 드는가?
3. 모르드개가 작성한 법안에는 유대인들의 원수들을 죽일 뿐 아니라 그들의 재물도 탈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전쟁

12월 13, 14일 양일간 유대인들이 한 일들은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자기 개인의 원수를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하고 있는 중이다. 즉, 거룩한 전쟁을 수행 중이다.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이들이 개인의 원수 감정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들은 지금 삼상 15장의 사울의 실수를 고스란히 거꾸로 되돌려 놓고 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가 이와 같다.

4. 이틀간의 원수 살해 후 유대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17-18)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잔치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렸고, 하루 아침에 몰살을 당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만의 10 아들을 시체를 매달고, 원수들을 이틀 만에 75,000명이나 죽였다. 그야말로 엄청난 대 역전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대인들은 14-15일 양일간 잔치를 열었다. 자칫 옹졸한 민족주의적 소아적 발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다. 금식하던 자들(4장)을 이번에는 잔치하게 하신다.

5. 홍해 건넌, 여리고성 함락, 가나안 정복 등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 반전이였다.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 반전의 역사들이 있었는가?

6. 부림절의 날짜, 기원,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21-26)

7. 성격상 부림절과 가장 비슷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다면 어느 절기일까?

8. 부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22)

부림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것이 부림절에 행하는 일들이다. 영락없는 설날, 추석, 추수감사절, 성탄절 분위기이다. 부림절에는 잔치도 필요하고, 선물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날은 모든 유다인들을 처형하기 위해 하만이 부르(제비)를 뽑아서 정한 바로 그 날이다. 부림절에 잔치도 선물도 가난한 사람도 다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부림절(12월 14-15)과 가장 가까운 오늘날의 성탄절에 잔치, 선물,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에게 마저 예수님이 밀려, 점점 잊혀져가는 것 같아서 영 마음이 좋지 않다.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과 베푸신 사랑, 우리가 축제 때 선물 외에 잊지 말고 교환해야 할 것들이다. 부림절에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없는 가난한 자 구제는 부림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를, 예수님 때문에 돌아보아야 할 대상이다.

부림절,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원수(하만)에게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유다인들에게는 아직 한 명의 원수가 더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파사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자유는 모르드개가 아니라 그의 통치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질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기다려야 할 완전한 회복, 완전한 승리가 남아 있다.

평화를 위해 지불한 댓가-모르드개, 에스더 vs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지불한 대가는 3일 금식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셨다. 예수님은 하만과 같이 나무에 달려 온 인류에게 조롱 당하셨다. 모르드개가 준 평화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